



KIA 김도영 “첫 해외 캠프, 설레고 행복해요”

“설레고 행복해요.” KIA 타이거즈의 2023 시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KIA는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스프링캠프가 꾸려진 미국 애리조나 투싼으로 향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해외 캠프에는 김중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9명, 선수 36명 등 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프로 두 번째 해외 앞둔 내야수 김도영(사진)도 부푼 가슴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도영에게는 프로 첫 해외 전지훈련이다. 또 프로에서 첫 스프링캠프를 소화한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뒤늦게 1군 캠프에 합류하는 등 사연이

타이거즈 1군 캠프 어제 미국 애리조나 투싼으로 출발 “후반기 좋았던 타격 이어가고 안정된 수비 보여주겠다”

있었다. 김도영은 “기대도 되고 떨린다. 선배님들이 확실히 한국에서 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곤 말씀 많이 해주셨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비시즌에 몸을 만들었다”며 “캠프 무사히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첫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소감을 밝혔다. KIA는 2월 19일 WBC 대표팀과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연습 경기를 소화한다. 이에 맞춰 김중국 감독은 선수들에게 ‘준비된 몸’을 주문했다. 김도영은 “캠프에서 바로 훈련 강도 높게 할 것이라고 하셔서 준비 잘했다. 비시즌에 힘들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바쁘게 살았다”며 “아침에는 센터 가서 운동하고, 오후에는 필라테스도 했다. 코어가 약한 편이고, 필라테스 했던 형들이 야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필라테스를 했다. 진짜 힘들

었다”고 이야기했다. 12월에는 웨이트 강도를 높이면서 예열을 했던 김도영은 1월에는 모교 동성고를 훈련장으로 삼아 스피드·파워에 신경 쓰면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속도를 냈다. 김도영은 “모교에서 훈련하는 게 재미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잡혀서 운동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할 것 하면서 훈련하는 게 재미있었다(웃음)”며 “나도 야구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후배들에게 조언은 안 했는데 그래도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프로에 있는 형들이 오는 것만으로 재미있고 좋았던 것 같다”고 모교에서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해 김도영은 ‘슈퍼루키’로 KBO팬들의 시선

을 한 몸에 받으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시범경기에서는 고졸 루키 사상 첫 타격 1위에도 오르면서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시즌 초반 팀 타선의 동반 침체 속 벤치에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던 김도영은 이후 경험이 더해지면서 점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비시즌 몸을 잘 준비한 김도영은 첫 해외 캠프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타격 쪽에서 코치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후반에 좋았던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 수비에서는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오른쪽)가 30일 이탈리아 나폴리 디에고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세리에A 18라운드 AS로마와의 홈경기에서 AS로마 공격수 테미 에이브라햄과 머리로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적장 무리뉴 “김민재는 환상적인 선수”

AS 로마 공격진 퐁퐁 묶어 나폴리 2-1 승리 이끌어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선두 나폴리의 후방을 지키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이번에는 AS 로마의 공격진을 퐁퐁 묶었다. 로마의 스리톱이 유효슈팅을 하나도 차지 못한 가운데 조제 무리뉴 감독도 상대 팀 선수인 김민재

를 록 집어 칭찬했다. 나폴리는 30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AS 로마를 2-1로 꺾었다. 나폴리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파울로 디발라가 실망스러웠나? 난 선수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김민재와 아미르 라흐마니는 대인 수비가 아

주 강한 선수들이다. (그 중) 김민재는 환상적 선수”라고 말했다. 로마의 스타인 디발라는 스리톱 중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유효슈팅 없이 슈팅 1회에 그쳤다. 디발라는 리그 14경기에 출전 7골을 기록 중이다. 왼쪽 공격수로 나선 로렌초 펠레그리니 역시 슈팅을 딱 한 번 찼고, 이마저도 유효슈팅이 아니었다. 중앙 공격수 테미 에이브라햄은 아예 슈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이들과 주로 맞붙은 김민재는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 집계상 양 팀 통틀어 최다인 견어내기 9회, 슈팅 저지 2회 등을 기록하며 철벽수비를 자랑했다. 특히 견어내기는 라흐마니나 상대 중앙 수비수 크리스 스몰링(이상 5회)의 2배 가까이 수차례. 하프라인 위까지 올라와 상대 스리톱을 강하게 압박한 김민재는 공을 탈취하거나 파울을 만들어 내며 로마의 공격 속도를 늦추고, 빠른 발로 뒷공간으로 질주하는 공격수를 모두 잡아내며 역습도 막아냈다.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하게 지키는 나폴리는 순위에서만 선두가 아니라 올 시즌 최소 실점(15골)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통산 10회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호주오픈 우승 테니스 남 단식 최초 10승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가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650만 호주달러·약 672억원) 남자 단식 사상 최초로 10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조코비치는 2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4위·그리스)를 2시간 56분 만에 3-0(6-3·7-6<7-4>·7-6<7-5>)으로 물리쳤다. 2021년 이후 2년 만에 호주오픈 왕좌에 복귀한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만 통산 10차례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호주오픈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이다. 이번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은 297만5000 호주달러(약 26억1000만원)다. 단일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10년 이상 우승한 것은 호주오픈 여자 단식 마거릿 코트(은퇴·호주)의 11회,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의 14회에 이어 올해 조코비치가 통산 세 번째다. 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부문에서 나달과 함께 공동 1위(22회)가 됐다. 나달은 1986년생, 조코비치는 1987년생이다. 조코비치는 7개월 만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세계 랭킹 1위를 되찾았다. 조코비치는 30일 발표된 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에서 2주 전 5위보다 4계단 오른 1위가 됐다. 지난 29일 호주 멜버른에서 끝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을 제패한 조코비치는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 1위 자리를 예약한 바 있다. 호주오픈에서 준우승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그리스)는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1위였던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는 부상 때문에 호주오픈에 불참, 2위로 내려섰다. 호주오픈 2연패에 도전했으나 2회전에서 탈락한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2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또 호주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권순우(당선시청)는 52위에서 61위로 하락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에서는 이가 시비 옹테크(폴란드)가 1위를 지킨 가운데 호주오픈 챔피언 아리아 사발렌카(벨라루스)가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호주오픈 준우승자 엘레나 리바키나(카자흐스탄)는 25위에서 10위로 경종 뛰었다. 아시아 국가 선수로는 장샤이(중국)가 23위로 최고 순위를 지켰고, 한국 선수로는 장수정(대구시청)이 14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윤람, 막판 ‘와르르’ 세계 1위 무산 ... “그게 골프”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FR 2오버파 부진에 역전패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무너져 3연승과 세계랭킹 1위 탈환이 무산된 윤람(스페인)은 “그게 골프”라고 말했다. 람은 29일(한국시간) 끝난 대회 최종 라운드를 2타차 2위로 시작했지만 2오버파 74타로 부진, 6타를 줄인 맥스 호마(미국)에 역전패를 당했다. 공동 7위로 대회를 마친 람은 기대했던 3개 대회 연속 우승과 세계랭킹 1위 탈환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그는 이번에 우승했다면 무조건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었다. 3위만 차지해도 세계랭킹 1위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람은 7위까지 밀리면서 다음 기회로 넘겨야

했다. 앞선 두 차례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63타와 66타를 쳐 우승,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람은 이날 무너진 원인으로 초반에 넣어야 할 퍼트를 넣지 못한 사실을 꼽았다. “최종일 스윙은 괜찮았다. 좋은 스윙을 했다. 하지만 좋은 스윙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총평한 그는 “넣어야 할 퍼트를 몇 차례 놓치면서 동력을 잃었다. 몇 개가 성공했다면 (우승)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승을 놓쳤어도 그게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못 박았다. 람은 “최선을 다했다. 다만 그게 골프”라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땐 안되는 게 골프라는 얘기다. 람은 최종 라운드에 앞서 “세계랭킹 1위가 되든 안 되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세계랭킹 1위보다는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오현규, 스코틀랜드 셀틱 데뷔전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FC 오현규가 29일 영국 스코틀랜드 던디 테나디스 스타디움에서 던디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열린 2022-2023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3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